



Cho So Hyun, "XOXO TO EXO," *Vogue Korea*, April 2017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XOXO TO EXO

예술가는 모순 가득한
삶에 맞설 용기를 가진
마지막 구원자다. 대중문화
크리에이터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아트 피스로
〈보그〉 카메라 앞에 선
엑소 시우민, 수호,
백현, 첸의 예술 모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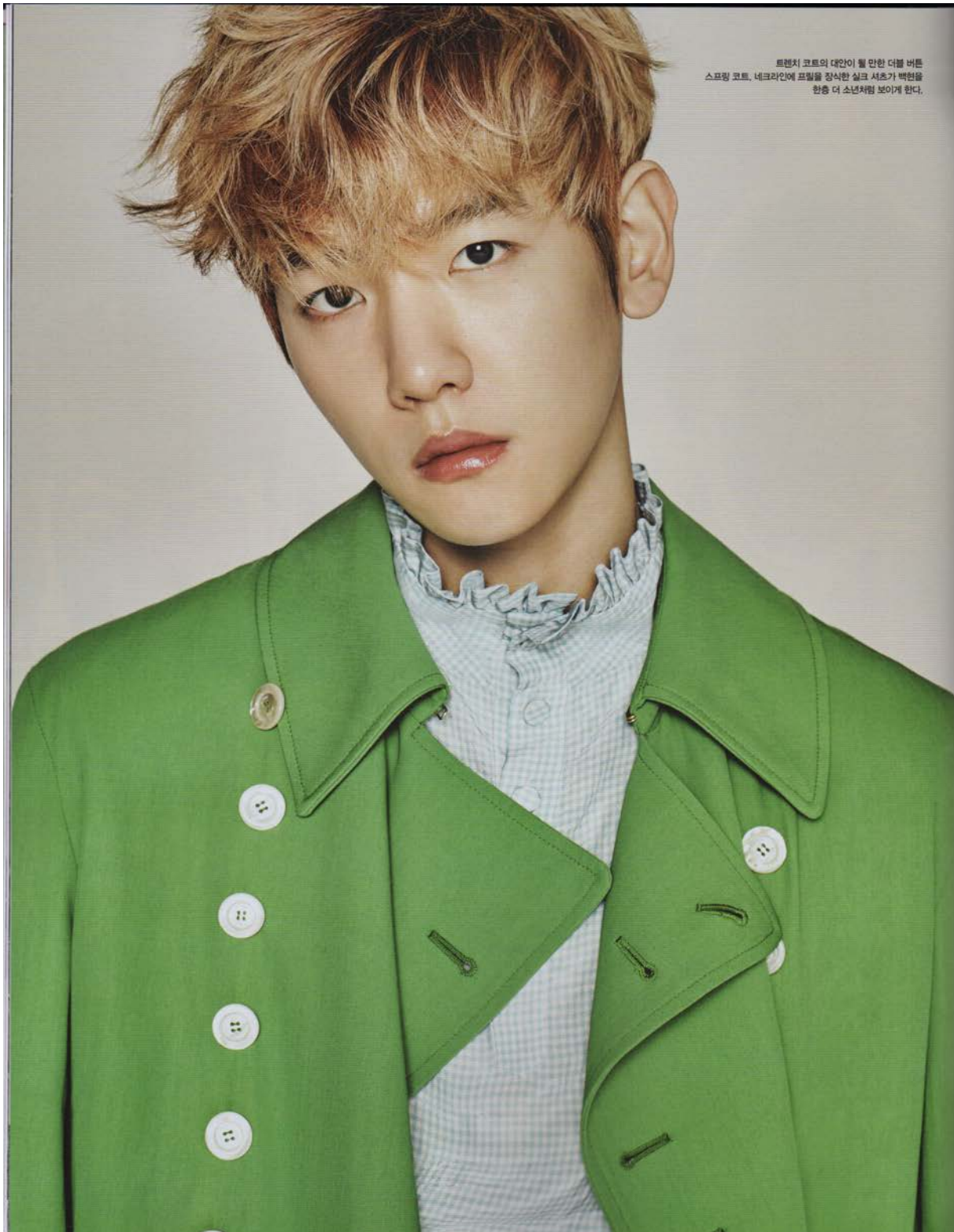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KIM HYUNG SIK
STYLED BY
SONG BORAH
EDITED BY
CHO SO HYUN



작가 제시 오코넬이 로코코 화풍으로 표현한 엑소



오는 5월 일본에 데뷔하는 헐백시와 리더 수호가 한자리에 모였다.
볼 앨범산부터 프리즘까지,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빈티지한 낭만주의에
트렌디한 스포츠웨어 요소를 가미한 구피 앨범산을 구성했다.
헤어 / 박흥권 메이크업 / 김지현 세트 스타일링 / 최서윤(Daerak)



트랜지 코트의 대안이 될 만한 더플 버튼
스포츠 코트, 네크라인에 표밀을 장식한 실크 셔츠가 백현을
한층 더 소년처럼 보이게 한다.



프리를 컬렉션의 스몰 록, 와펜 장식의 벨벳 재킷, 울 니트 베스트와
핑크 스트랩 브로그까지 영국 기숙학교 교복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백현이 입은 핑크색 울 재킷과 카푸치노 색상의 실크 타월넥은 70년대풍의 스타일리시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시우민이 입은 것은 프리틀 캠퍼스의 꽃 자수 장식 MA-1 재킷, 현의 그로그렘 리본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재킷과 빨간색 캐시미어 타월넥은 마틴 복을 풍겼다.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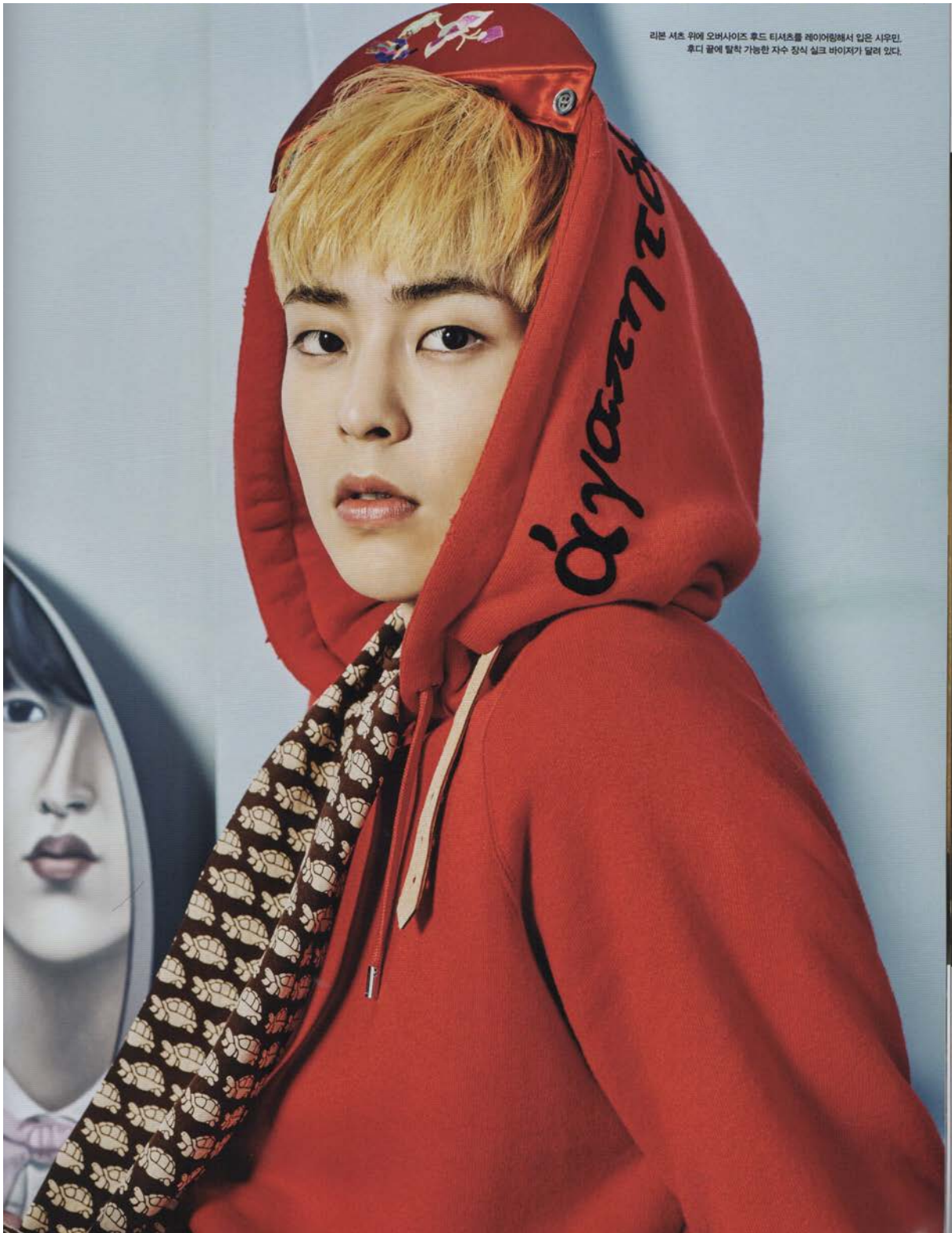




박현을 그린 작품. 작가는 각 멤버의 여러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요소를 골라 작품을 완성했다.









로렌스(한) 장미 소년으로 표현한 사우미, 고와 일매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EXO TO XOXO

예술가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인류다.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트 피스로 <보그> 카메라 앞에 선
찬열, 디오, 카이, 세훈의 예술 모먼트.
PHOTOGRAPHED BY
YOO YOUNG KYU

작가 제시 모크리이 그린 찬열, 꽃나무가 찬열에게 미소녀 이미지를 더한다.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구피의 로맨틱한 수트 덕에 남자와 소년의 경계에 있는 엑소 멤버들의 묘한 분위기가 강조된다.
헤어 / 이혜영, 박내주 메이크업 / 김지현 세트 스타일링 / 최서윤(Darab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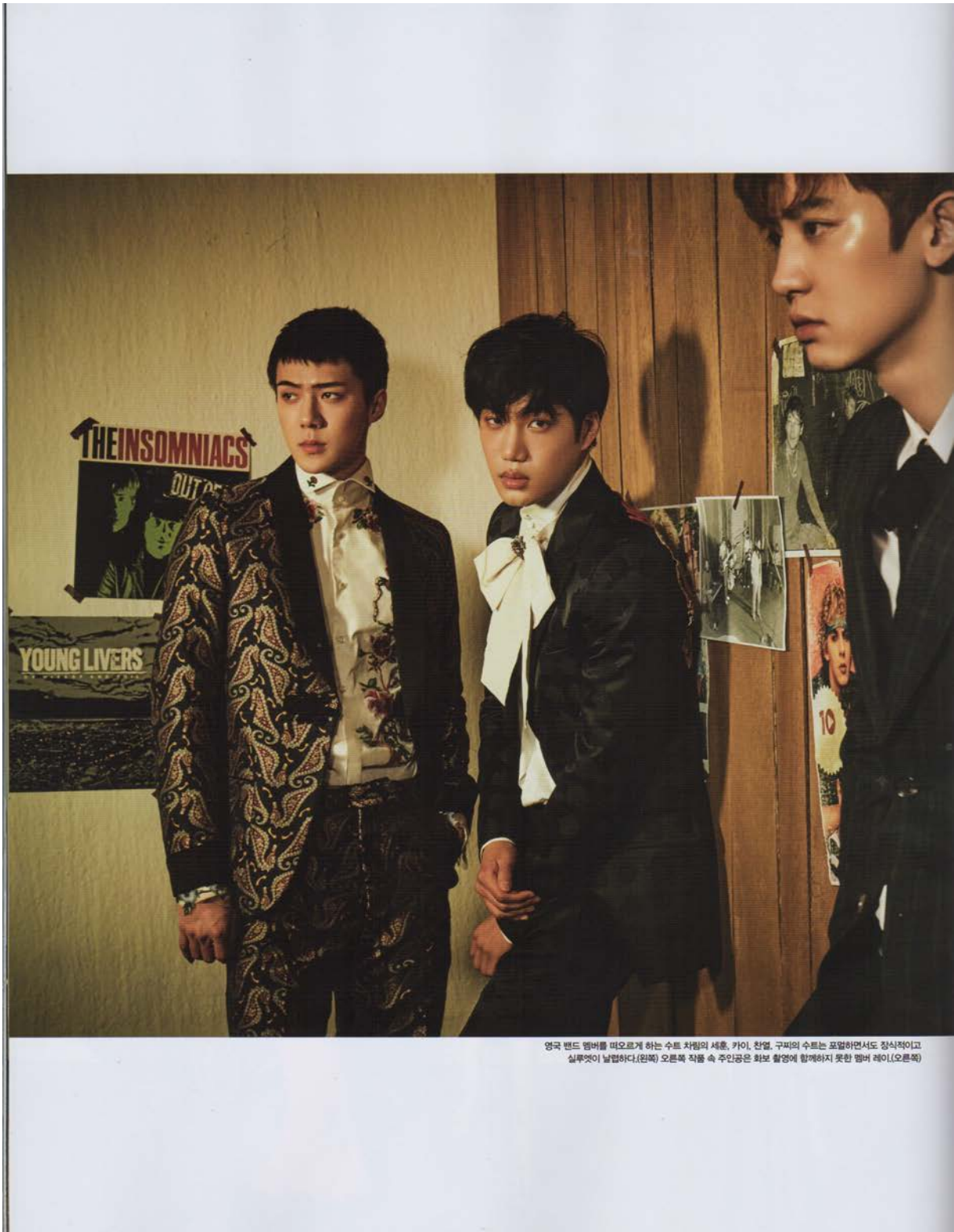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카이가 입은 오버사이즈 스웨트셔츠는 2017 S/S 여성 컬렉션에서 선보인 제품, 알렉산드로 마렐레의 빈티지 취향은 디자인뿐 아니라 색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외자 앞의 포트리테이는 동계구름을 배경으로 그린 카이(왼쪽) 세운이 입은 코트와 트랙 팬츠는 구찌 프리즘 컬렉션, 클래식한 헤링본 코트에 화려한 자수 장식을 더했다. 세운을 그릴 때 작가는 그의 깊은 눈매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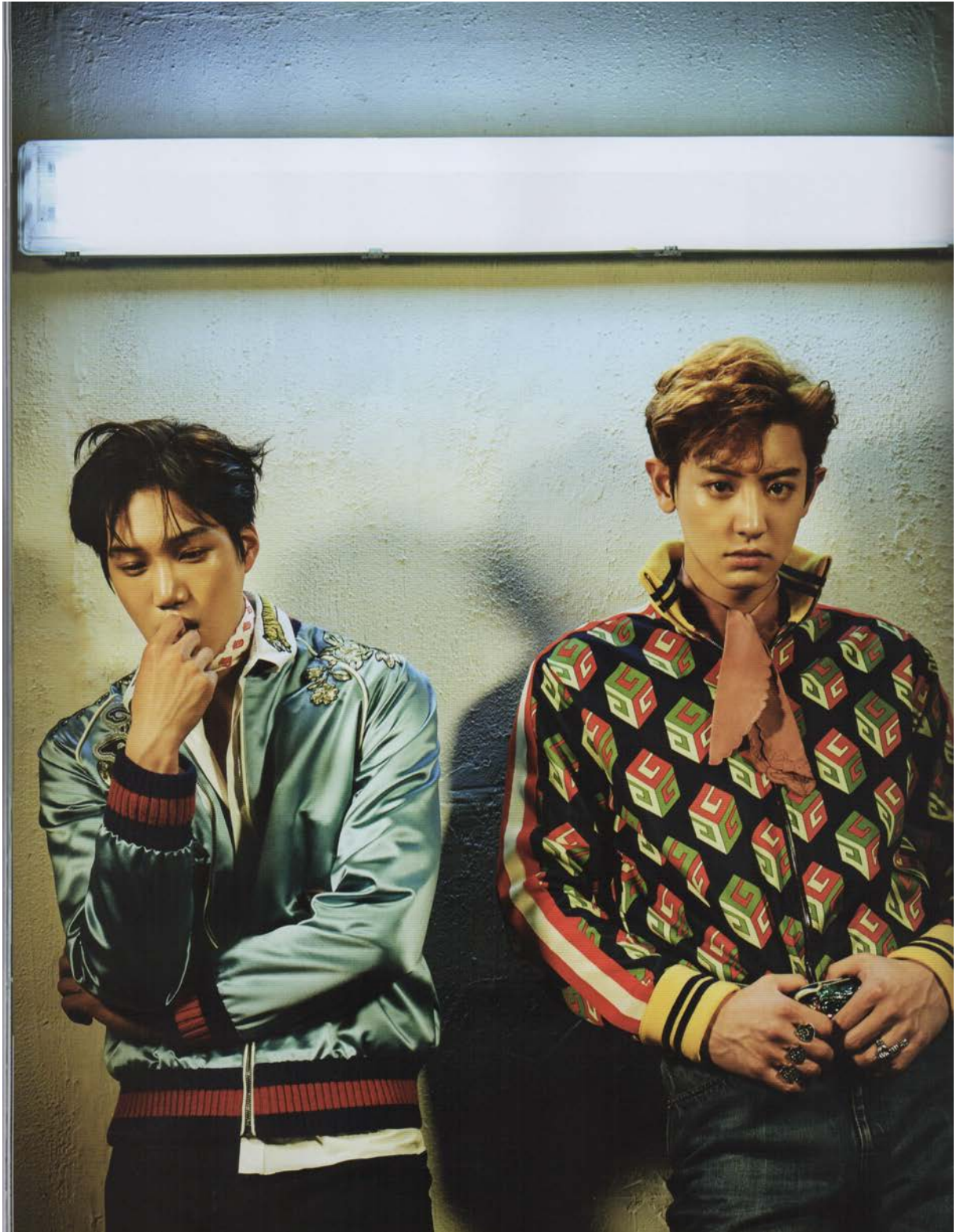


영국 밴드 멤버를 떠오르게 하는 수트 차림의 세훈, 카이, 찬열. 구피의 수트는 포멀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실루엣이 날렵하다.(왼쪽) 오른쪽 작품 속 주인공은 화보 촬영에 함께하지 못한 멤버 레이(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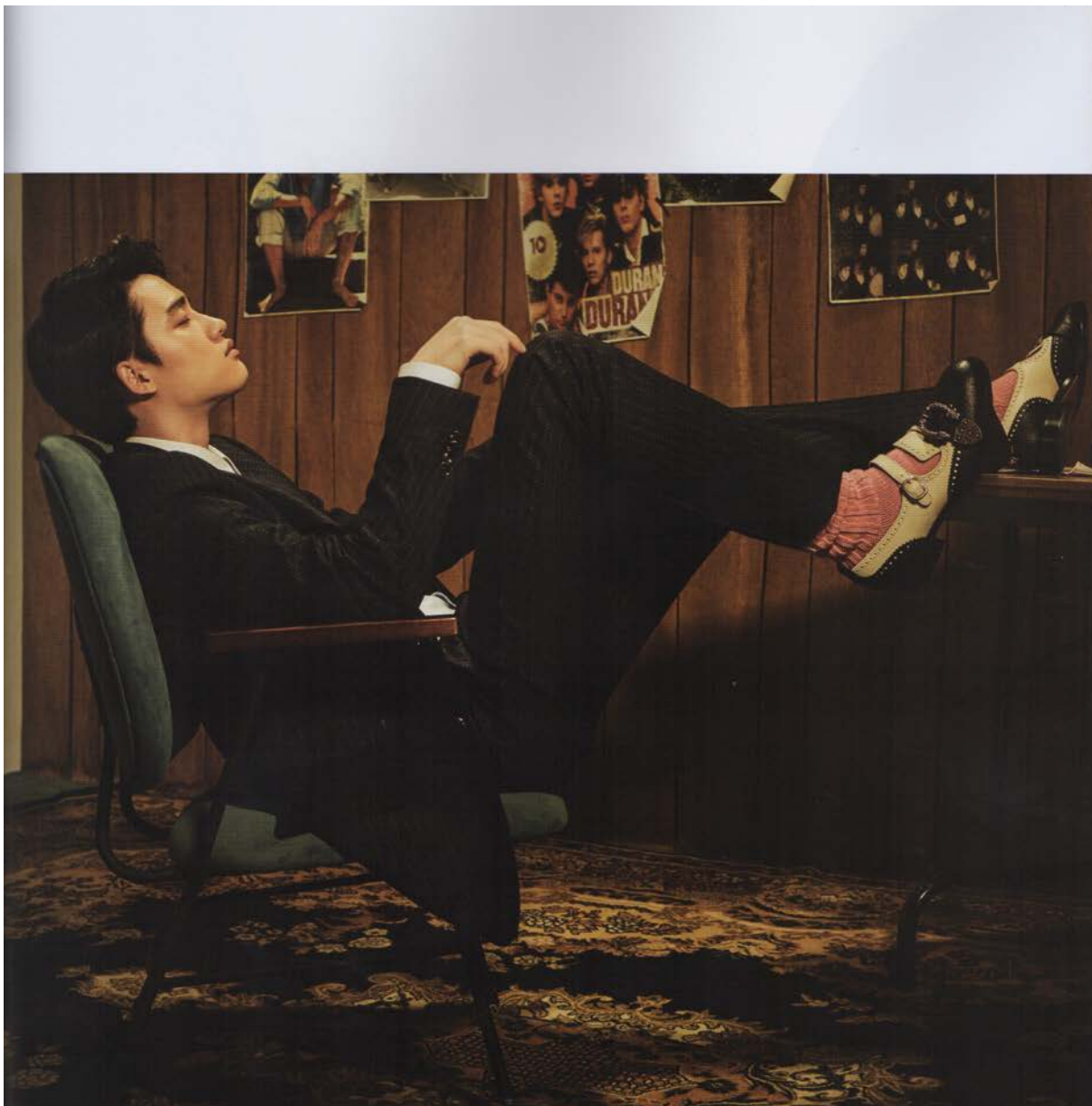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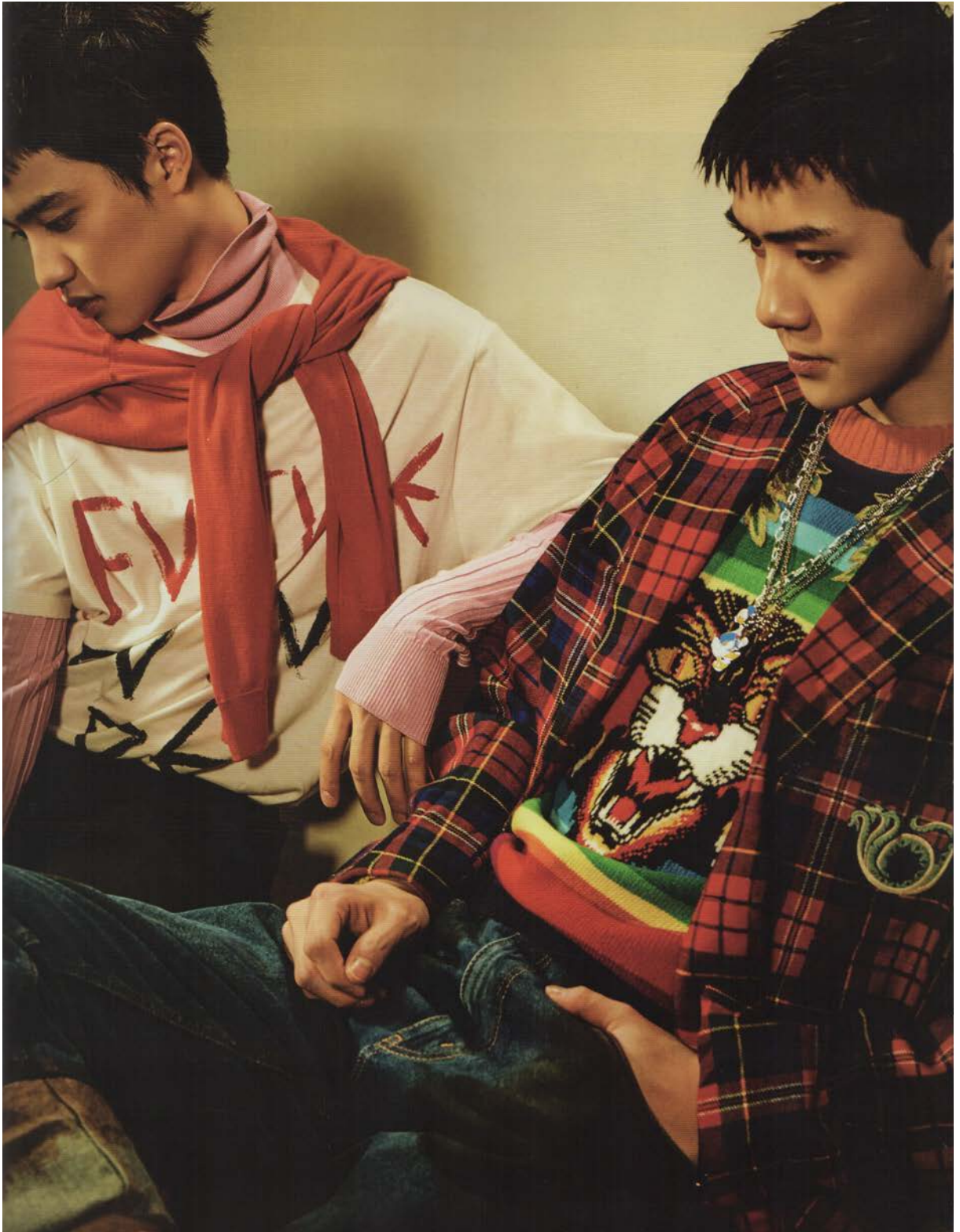
NIGHTGALLERY.CA



카이가 입은 수베니어 재킷, 한열의 리본 실크 셔츠와 저지 재킷은 풍량과 서양을 아우르는 하우스의
빈티지 미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이다.(왼쪽) 수트에 두툼한 양말을 신거나 뽕뽕 솔리피를 매치하는 것이
구피가 제안하는 새로운 수트 스타일링.(오른쪽)



마빈 캅에 솔리브리스 톰을 입은 찬열은 유럽 어느 항구 도시의 젊은이처럼 보인다.(왼쪽)
디오가 입은 티셔츠에는 볼 캅렉션의 주요 키워드 '퓨처(Future)'가 낙서처럼 적혀 있다. 세훈의 프리즘 캅렉션 의상에 적용된 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패턴을 쌓아 올리는 맥시멀리즘 법칙. 이번 시즌에 디즈니와 협업해서 캅솔 캅렉션을 선보인 도널드 덕과
용기, 강함을 상징하는 사자 머리 목걸이를 레이아웃했다.(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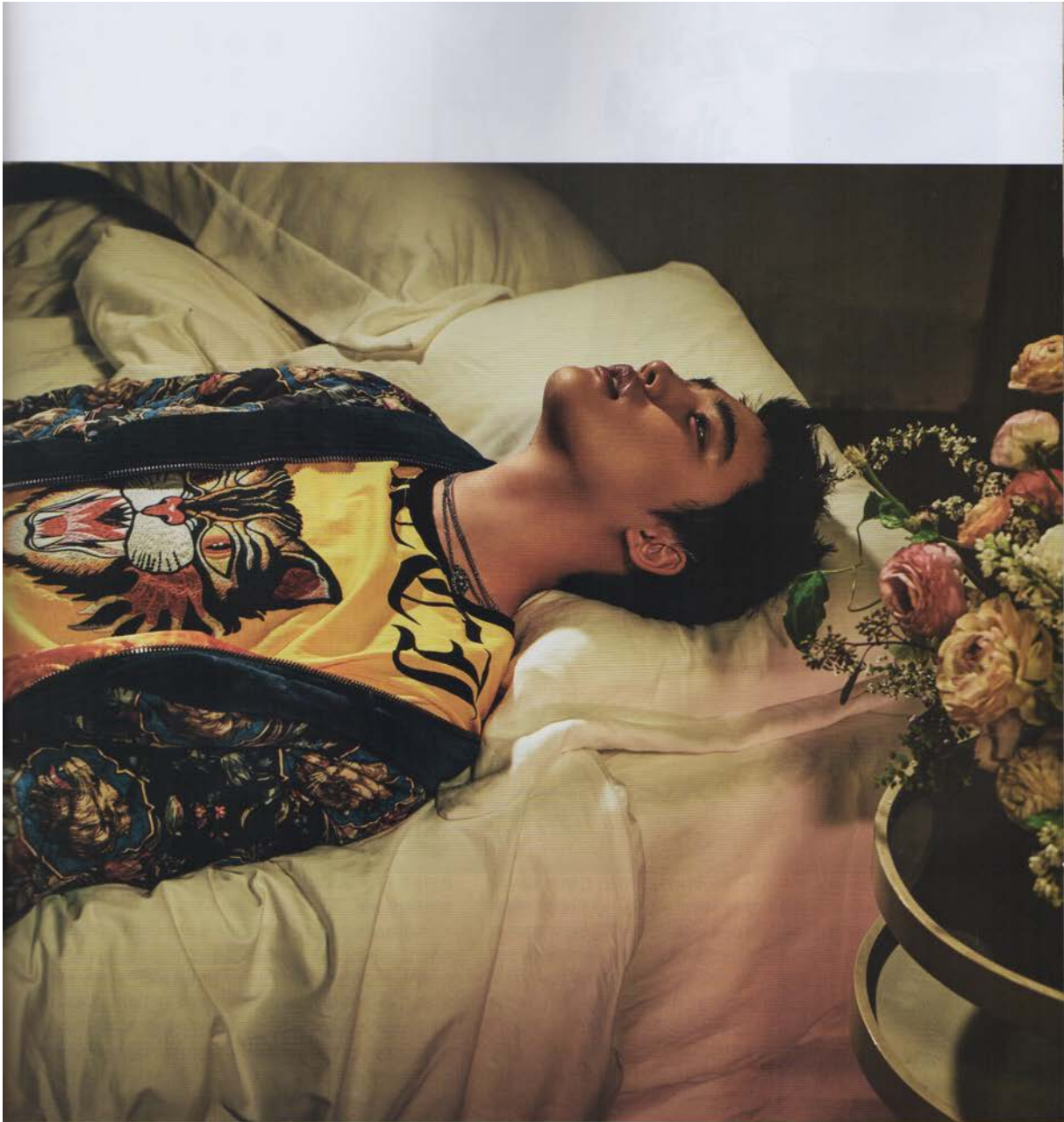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2276 EAST 16TH STREET, LOS ANGELES 90021

NIGHTGALLERY.CA



인물 특유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 디오의 포트레이트, 그림 속 팔각이는 커튼의 꽃무늬가 디오의 프리를 컬렉션
종버 재킷의 화려한 프린트로 이어지는 듯하다. 의상과 액세서리는 구찌(Gucci).



제시 모크린의 작업실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앞으로 계획은 올가을 나이트 갤러리(Night Gallery)에서 열릴 예정인 아트 페어에 전시할 작품을 준비하는 것.

● 시대의 주기는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맞물려 돌아가곤 한다.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 사이 겹치는 지점을 포착해내는 건 촉수가 예민한 예술가들의 몫이다. 제시 모크린(Jesse Mockrin)은 1905년 어린 소녀들에게 인기 있었던 커다란 보타이가 21 세기의 댄디한 케이팝 스타 목에 둘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 시간차를 캔버스로 불러들여 해체하고 재탄생시키는 데서 시작한다.

제시 모크린 작품의 첫인상은 얼핏 원색이 빠진 클래식한 명화 같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적으로 인물이나 풍경을 그렸던 과거 명화에서 어긋나듯 비껴서 있다. 성별과 시대, 국적이 모호해 보이는 인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듯하다. 가령, 그네를 타는 여인을 그린 장 오노레 프라코나르의 작품은 치마 아래 발차기 하듯 뺨은 여자의 다리, 남자의 손만 트리밍되어 제시 모크린의 작품에 재등장한다. 원화에 서 발췌해 잘라낸 부분은 그녀만의 커다란 세계가 된다. 익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새롭다. 고전의 파괴다. 제시 모크린은 장 오노레 프라코나르와 프랑수아 부셰와 같은 18세기 화가의 그림과 현대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인터넷으로 과거 그림을 보며 그림을 그리

는 과정은 과거와 현재를 클라주 할 수 있게 하고 동일한 사공간에 이들을 서식하게 한다.

제시 모크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댄디다'. 역사적인 회화 작품 속에서 변화해온 젠더 코드를 통해 오늘날 젠더 바운더리에 의문을 던진다. 처음 로코코 시대 거장의 그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도 남자의 머리에 꽃혀 있던 꽃 때문이었다.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성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다. 로코코 시대의 자유로움은 마치 평행이론처럼 케이팝 스타, 패션 매거진 속 남성 패션, 젠더와 상관없이 리본, 꽃 등의 소재를 아름답게 풀어낸 구찌 컬렉션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는 최근 2년간 제시 모크린의 작품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서울 페로탱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XOXO>는 제시 모크린의 작품 세계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물까지 확장된 결과다. 하나의 이미지로 서만 존재하던 케이팝 스타는 엑소라는 구체적인 피조물을 통해 '현대 댄디'의 상징으로 아홉 개의 동그란 화폭에 담겼다. "대학원 다닐 때 이후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그린 건 처음이에요. 보통 사진이나 예전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막상 결과물은 오리지널 소스하고 씩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엑소 멤버들 실물이 그림과 닮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존 작품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작품이 파스티슈가 됐다. 이번 작업에서 특별히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 토머스 게인즈버러,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 르 브룅의 작품. “영감을 받기 위해서 18세기 유럽의 회화 작품과 중국풍 시누아즈리 데커레이션을 찾아왔고 공간 압축, 양성성, 장식적 테마 같은 제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를 포함시켰어요. 셀러브리티의 컨셉에 판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다가 파장된 로맨스의 분위기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환상적인 느낌을 녹아들게 하기 위해 크로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제시 모크린이 엑소를 알게 된 건, LA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뮤직 스토어에서였다. 그저 머리 위로 눈이 내린 듯한 스타커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사진으로 보이는 피부 표현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림으로 그려볼 때의 피부를 생각해볼게 됐다. 이번 작업은 예술가의 촉수를 자극한 실재가 예술가의 시선을 통과해 또 다른 실재가 된 결과다. 작업하는 내내 그녀의 작업실은 엑소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각각의 포트레이트는 사진 여러 장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라이팅을

참고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귀의 모양을 본따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멤버들 얼굴을 쳐다보느라 쓴 시간이 얼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쳐다봤는데 모두의 얼굴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우민은 눈이, 찬열은 귀가 인상적이었죠. 멤버 한 명 한 명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아홉 명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음악, 퍼포먼스, 연기, 영상 등 문화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과 예술의 접점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내놓고 있는 엑소에게도 작가의 시선으로 재창조된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은 처음이다.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존재로서의 엑소,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엑소를 <보그> 카메라에 담던 날, 처음 그림을 마주한 멤버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바라볼 때처럼 한참을 그림 앞에서 있었다. “저희를 사실적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작은 포인트들이 눈에 잘 들어와서 그림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시선으로도 우릴 볼 수 있구나 싶어 새롭네요. 늘 봐왔던 대상도 그림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현)” “얼굴 표정이 일단 특이한 거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까요? 진짜 신기하다.(디오)” “제 귀를 똑같이 그려주서

VOGUE KOREA APRIL 2017 VOGUE.COM



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얼굴을 중심으로 그림 것 같거든요. 작가님을 만
나면 귀를 잘 그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를 직접 본
소감이 어떤지도 여쭙보고 싶네요. 하하(백현) "예전에 활동하던 모습이
겹쳐서 떠올랐어요. 'Love Me Right' 활동할 때의 밝고 귀여운 느낌이
오, 그나저나 다른 멤버들 그림도 다 저 같은데요? 하하(시우민) 카이는
처음 가수 활동을 시작할 때 자신을 자극하던 존재가 떠오른다고 말했
다. "저희가 누군가의 창작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가수보다 댄서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마이클 잭슨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의 뮤직비디오를 다 가지고 있죠."

멤버들은 과연 엑소의 어떤 면이 작가에게 모티브가 되어있을까
자유로운 상상을 이어갔다. 세훈은 아홉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단
일 이미지를 가진 보이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디오는 소
년에서 성인 남자로 변해가는 지점, 소년의 마지막 지점이 깊은 인상을 남
겼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다 잘생겼는데 각기 다른 느낌으로 잘
생겨서 영감을 자극한 게 아닐까요? 작가님도 작업하면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웃음/찬열)"

제시 모크린에게 케이팝이 강렬하게 다가온 이유 중 하나는 남자 스

타들을 로맨틱하고 페미닌한, 양성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때가 있다
는 사실이다. 미국 문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데이비드 캐시디나
저스틴 비버가 그 예다. 10대 시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우상이었던
제시 모크린에게 남자 케이팝 스타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하는 양
면성을 띤다. 평소 남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자
들이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에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대와 문화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역할은 너무 유동적이라서 우리의 행
동, 옷차림, 혹은 능력이 타고나는 건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포트레이
트는 옷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당시의 성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는 다양
한 시기의 포트레이트를 통해 변화를 알 수 있죠." 제시 모크린은 지난 2
년간 옷차림에 성 구분이 없어져가는 과정을 패션 잡지를 통해 목격했
다고 전했다. "화려함이 밴즈웨어의 트렌드가 되는 걸 보면서 18세기 로
코코식 작품을 떠올렸죠. 강한 조명, 양성적인 모델들, 플로럴 패턴 그리
고 로맨틱한 테마에 끌리는 편인데 이런 요소를 온갖 잡지에서 다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 리틀 도쿄에 있는 일본 서점에 갔다가 발견한

MOE YE BIN, YOO YOUNG KYU



《Commons & Sense Man》은 가장 좋아하는 잡지 중 하나가 됐죠.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패션 잡지도 많이 봤어요. 사진의 스타일, 그들의 테마가 제 작업에서 추구하는 바와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아해요.”

실제 엑소 멤버들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의상을 입을 때 드러나는 자신들의 새로운 점을 즐긴다. “중성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보 찍을 때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곤 하는데 그런 게 싫지 않아요. 평소 입지 않는 옷을 입는 기회니까 화보 촬영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카이] 수호는 이렇게 말했다.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비주얼이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담긴 그림이 아닐까요? 제가 그려져 있지만 동물 같은 다른 대상이 그려져 있어도 그림에는 대상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시 모크린의 작품을 오리지널 원화와 가장 다르게 만들었던 요소는 창백한 검은색과 푸른색이었다. 레이어 위에 거들 쌓인 검푸른색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들었다. 이미 색을 입힌 배경 위에 그려진 그림은 현실 세계의 것과는 다른 회화적인 공간감을 선사했다. 이번 XOXO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푸른 빛깔이 도드라지고, 엑소 멤버들은 이 환상적인 공간 속을 유영한다. “바탕색을 푸른색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톤에 깊이와 복잡성이 생기거든요. 과거 작업에서는 어두운 푸른색 배경에서 시작해 흰색과 파란색을 레이어링하는 방식으로 어두운 배경색에 대조되는 피부의 빛나는 느낌을 살렸어요. 이번에는 좀더 밝고 생동한 파란색에서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 저에게 중요한 건 색깔 그 자체보다 그림 속 색의 관계가 어떨지, 그림마다 나름의 논리가 있는지, 얼마나 잘 어울리지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각 형태의 그림으로 꼭 찬 세계를 전달하던 기존 작품과 달리 XOXO 프로젝트 작품은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처음 영감이 되었던 엑소 스티커의 형태가 원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원이 쓰인 방식을 참고했어요. 스튜디오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동그랗거나 타원형의 18세기 포트레이트가 있었어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48인의 초상’ 같은 포트레이트 프로젝트의 유형을 생각해봤어요. 그림 프레임이 전부 같아서 개인의 차이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죠. 그 컨셉을 조금 고아서 프레임에 다 똑같이 유지하는 대신 둥근 그림 위에 네모진 그리드를 얹고, 각 그림마다 대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크트하면 굉장히 강렬한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시 모크린의 작품이 보는 이들을 새로운 질감의 세계로 인도하듯 엑소 멤버들에게도 예술이 주는 평온한 순간들이 있다. “음악을 듣는 것

도 좋지만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릴렉스하는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작가의 의중을 상상하다 보면 차분해져요. [백현]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하늘을 찍은 사진은 수천 장 정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 온통 파란색이니까요. 사진을 보면 그 당시 느낌이 떠오르고 마음이 편해져요. 날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찬열] 수호는 얼마 전 촬영차 찾은 스위스에서 쿤스트할레를 방문했다고 했다. “풍경화도 좋지만 자화상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림 속 작가는 실제 작가와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외면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이 그림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림과 마주하고 있으면 작가의 내면과 대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카이는 그림으로부터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어요. 가수를 직업으로 삼다 보면 외적인 면이 중요하잖아요. 뮤직비디오나 영상에 아트를 녹여보고 싶어요.” 디오에게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매체는 영화다. [빌리 엘라이트]가 한동안 잊고 살던 감정을 떠오르게 했다고 말했다. 세훈은 패션 워크 방문차 다녀온 도시 파리 전체를 영감의 원천으로 꼽았다. “수많은 셀러브리티, 패션 피플, 파리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 품고 있던 문화를 느끼면서 그냥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어요.”

제시 모크린은 케이팝으로부터 판타지, 자유, 로맨스를 느낀다. 그리고 케이팝 스타의 스타일링을 너머 그 내면의 문화 속에서 판타지를 본다. “케이팝 노래 제목을 좋아해요. 특히 사랑, 로맨스, 마법에 관한 제목이라면 더더욱. 이런 제목을 쓰면 그림 속 판타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케이팝 스타들이 팬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을 향한 팬들의 사랑 역시 저를 매료시켰어요. 열정적이고 진심된 사랑인데도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리감이 기본이 되는 관계잖아요.” 모순적인 관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유사성을 말한다. “누군가를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겠죠. 어떤 사람의 묘사체를 만들어 그것을 소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사랑의 행동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이런 로맨틱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시 모크린의 머릿속에서 펼쳐진 판타지는 엑소, 꾸찌 그리고 <보그>를 만나 2017년의 어느 시점에서 포착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만들어진 잡집. 전시 <XOXO>는 코로넬 갤러리에서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엑소 멤버들이 볼 작품을 확인하러 들를지도 모르겠다. “잠에 들고 싶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컬렉션 전체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죠? 하하하하.” “전시가 시작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엄마야! 아들 찾아와~’ 하면서 확인해볼 것 같아요. (사우민) ▼

VOGUE KOREA APRIL 2017 VOGUE.COM